

설교자회의(20240823)

본문: 로마서 5:12~21절

제목: 두 대표자가 낳은 결과

대지 1. 비참한 죽음

2.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

한줄 요약 “아담이 낳은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결과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연구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이 죄가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서 있었기에 이후로 존재할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을 누리는 존재에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의 저주와 외면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불이익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이렇듯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후대에게 남긴 것은 사망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이었고, 불이익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이 영향 아래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과 얻게 된 결과는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보다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주셨습니다. 저주와 외면이라는 불이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주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크지만 엑기스만 모아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안 바뀔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담은 그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행한 어떤 것으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시키려고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담은 ‘그가 좌로 가면 그 결과가 좌측에 생기고, 우로 가면 결과가 우측에 생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안 바뀌고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며,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것은 “선물을 주는 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나를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세상에 어떤 것을 갖고 와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엇을 하여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닌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전까지 인류는 빼앗고, 밝고 넘어가야 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생명을 빼앗기느냐, 무엇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싸움에 있지 않고, 이 생명을 얼마나 번성시키느냐의 싸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대표자가 낳은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빼앗고 넘어서고, 더 많은 사람을 받아내려 인정받아야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풍성함을 낳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1. 본문: 로마서 10:9~17절

제목: 구원을 받은 자

대지 1. 누구든지 차별이 없으며

2.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음

한줄 요약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고, 구원받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연구

본문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전후 문맥을 함께 돌아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내용을 지적하기 위해 설파하는 내용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서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어떤 원인과 조건을 제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누구든지’는 정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0장에 등장하는 당시 이스라엘이 가졌던 차별인 ‘우리만이 구원의 대상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스라엘이 지닌 차별을 깨는데, 그 첫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지만, 반대로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할례를 행해야했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하며,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구원

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를 믿는 믿음과 고백과 시인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야 28:16절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부끄럽다’는 말을 ‘다급하다’는 말로 해석해왔습니다. 여기서 ‘다급하다’는 원어는 ‘서두르다, 혹은 속히’라는 말로 가장 많이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이며, 어디가나 높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이사야의 배경을 근거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실패 없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쪽에서 시작되고 근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요동할 일도 없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일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담대하게 전하고, 담담하게 순종하고, 서두르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 본문: 로마서 13:8~10절

제목: 사랑의 빛

대지 1. 율법

2. 완성

한줄 요약 “우리는 누군가와 하나님께 사랑의 빛이 있고 그것을 율법으로 완성하라.”

연구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사랑은 본질상 빛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사랑은 ‘자기 마음에 진심과 정성과 가장 귀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빛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보면 어떻게든 자녀에게 좋을 것을 주기위해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제성을 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또한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받았다는 말속에는 빛을 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 더욱 넘치는 것이기에 사랑은 하는 자가 주는 것으로 인해서 고갈되거나 결핍되지 않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갚을 방법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피차 빛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은 우리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악한 자 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을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십계명중 5~10계명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

에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과 너를 향하여, 보호하시는 모든 손길에 모자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것을 빼앗아 와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주시고 넉넉히 주십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네게 부족하게 준게 뭐냐? 네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게 구했으면 내가 주었을 것이 아니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범죄하였느냐?”고 나무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은 단순히 상하관계로만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에 근거하여, 그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12~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규범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진 자아니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넉넉히 가진 자이기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넉넉히 가졌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 누린 자들 넉넉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고, 율법으로 나를 치장하거나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완성하는 성도님들이시길 축복합니다.

3. 본문: 여호수아 2:8~14절

제목: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신앙

대지 1. 듣고 마음이 녹아내린 자들

2. 듣고 깨닫게 된 라합

한줄 요약 “여리고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마음이 녹은 자들이 있는 반면, 듣고 하나님이 존재를 깨달은 사람도 있고 라합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연구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여리고에 들어갔지만 금새 신분이 돌고 나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사람들이 정탐꾼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 라합은 자신이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합이 들은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요단 동편에서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 등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표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들은 라합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0:9~10절에서 바울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는 말씀에 가장 부합된 인물이 오늘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간담이 녹아내릴 만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기로 신뢰하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그것을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오늘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특별한 고백이며, 귀한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할례를 행해 유대인이 되었거나, 유대교로 개종하여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모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차별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읽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스스로 자부심도 느끼고 괜찮은 신앙이라고 평가하지만, 말씀도 읽지 못하고 헌금이나 봉사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요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근거를 자꾸 나한테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 구원의 견고함과 차별 없음을 더욱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라합을 말할 때, ‘기생’이라는 그의 직업을 함께 부를까요? 그 이유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도,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작은 것에 일희일비할 이유도 없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 줄을 아실 때 더욱 담대한 신앙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